

Hana FX Weekly Letter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5. 6. 16

주간 달러/원 동향(6/9~6/13)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초반, 신정부 출범 이후, 재정 부양책과 상법 개정 등으로 통한 증시 밸류업 기대감 등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영향 등으로 환율 하락 출발. 이어 전일에 이은 외국인 증시 순매수 영향에도 런던에서 진행중인 미-중간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환율은 상승 전환한 국면
- 중반 들어, 미-중간 고위급 회담에 원칙적 합의 결과 도출 등이 달러 강세 주요하게 작용하며 달러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대내적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마무리 소식 등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모습
- 후반 들어, 미 5월 CPI의 시장예상보다 낮은 전년동기대비 2.8% 상승에 그치자 달러 약세 탄력 나타난 가운데 대만달러 강세 및 미-중 무역협상 마무리 단계 등에 따른 영향 반영 속 큰 폭 하락 후, 주 후반, 중동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 반영되며 큰 폭 상승 마감

주간시가

주간고가

주간저가

주간종가

주간등락

1,361

1,375.3

1,352

1,366.6

+11.2

달러/원 전망

- 이란-이스라엘간 중동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영향에 따라 그간 관세 이슈에 의한 달러 안전자산으로서 지위 약화 재확립을 통해 강세 나타낼 전망에 환율 상승 압력 다소 강화할 전망
- 특히,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 등이 이 지역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증폭 시, 외국인 자본의 일시적 유출 가능성 상존 등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농후
- 다만, 1,400원에 미치지지는 않겠지만, 1,370원대 이상에서의 고점 인식 기업들 달러매도 물량 확대 가능성 등이 상단 제한 요인으로 예상

예상거래범위

1,360원 ~ 1,375원

유로·엔화 동향 (6/9~6/13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달러가 미-중 무역협상 주시하는 가운데 미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99선 밑으로 하락하며 유로화 상승 출발 이어, 미-중간 협상이 상호 잘 진척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미국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 일부 반영되며 유로 소폭 약세 전환
- 중반 들어, 미국 5월 근원 CPI가 예상보다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미 국채 입찰이 양호하게 나타난 것도 달러 가치 하방 압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로 환율 상승. 후반 들어,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기한 유예 가능성 일축하는 언급 속에 미 생산자물가 오름세 둔화 등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 속에 ECB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3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강세 시현. 이어 주 후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미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에 달러 강세 영향 반영 등으로 유로는 약세 전환하며 마감

주간고가

주간저가

주간중가

주간등락

1.1393

1.1614

1.1373

1.1547

+0.0153



엔화 동향

- 초반,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시장 인식 파급에 엔화 강세 출발. 여기에는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 再부각도 다소 영향을 미친 형국. 이어 전일 미-중간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무역 마찰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달러 매수로 이어지며 엔화는 소폭 약세 전환한 국면
- 중반 들어, 미-중간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'기본틀'과 이행 계획에 원칙적 합의를 하고 트럼프의 승인을 앞뒀다는 소식 등이 엔화 약세 지속에 영향 미친 가운데, 일본 PPI가 시장 전망을 하회한 부분도 엔화 약세 지지
- 후반 들어, 간밤 이라크 관련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확산한 점이 안전자산인 엔화 매수세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엔화 강세 시현 후, 주 후반에도 중동 위기 고조감 최고조에 엔화 강세 지속했으나, 장 종 소폭 약세 전환하며 마감

주간시가

주간고가

주간저가

주간중가

주간등락

144.8

145.5

142.8

144.1

-0.72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6/9~6/13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초반, 2차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속에 상당부분 시장 선반영되었다는 인식이 더해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하락 출발. 이어 뉴욕 연은 발표한 미 1년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이 3.2%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외국인 수급이 장단기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상승 전환
- 중반 들어서도 외국인 장단기 국채선물 순매도 이어지는 국면 속에 5월 미 CPI에 대한 관망 속에 상승 추세 지속
- 후반 들어, 미 5월 cpi의 전년동기대비 둔화세 지속에도, 한은 총재의 경기부양책 시급 판단에도 과도한 금리인하에 대한 부작용 우려 언급 등으로 단기 구간 중심 국고채 약세 흐름에 금리 혼조세 시현 후, 주 후반,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고조 상황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시장 변동성 확대되며 국고채 금리 소폭 약보합세 시현하며 마감

주간 증시 동향

- 초반, 신정부 출범 이후, 상법 개정과 이에 따른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속 외국인 투자자의 강한 매수 등으로 상승 출발. 이어 정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었던 업종에서의 일부 차익실현이 나타났지만,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양매수 확대 속에 5거래일 연속 상승 시현
- 중반 들어, 대통령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 피력하는 발언 등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, 6월 수출이 반도체, 자동차, 조선 등 중심으로 견조세를 보임에 따라 3년5개월 여만에 2,900선 상향
- 후반 들어서도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 약세에도 불구하고, 코스피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조선 및 방산 관련 섹터가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지속으로 상승세 이어간 가운데, 주 후반, 중동 지정학적 긴장 강화하는 가운데 투자심리 위축되며 기관 순매도 확대 속 코스피 8거래일 상승 흐름 일단락되며 하락 마감